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께 드리는 글

이영식 · 중앙의대 부속 용산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자녀가 흔히 반항기라 불리는 청소년이 될 무렵, 갱년기에 접어든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아동기의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 아버지 상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무너지고, 대신 이상적인 아버지 상으로 바뀌어 “아버지란 마땅히 이리이러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식으로 아버지를 비난하게 된다. 이는 아이의 인지사고 발달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아버지가 위협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사춘기 이전 정상적인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별 문제가 안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부모-자식간의 갈등을 청소년기에 초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아버지는 남자 아이인 경우 동일시의 모델이 된다. 현실의 아버지에 덧붙인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청소년의 도덕관, 가치관, 사리판단의 기준을 형성케 한다. 여자 아이인 경우 아버지의 일거일동이 남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형성케 한다.

이 시기에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세대차이를 좁혀나가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 “옛날에 내가 자랄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하는 식의 태도는 자식들과의

벽만 쌓아갈 뿐이다. 방학 중 아버지와 아이가 단둘이 여행을 같이 떠난다던지, 요즘 TV에서 유행하는 현장체험같이 아버지가 실제로 하는 일을 아이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자식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 사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 끔직한 사랑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아이는 다만 부모가 너무 자신의 일에 간섭하고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식들의 태도를 보는 부모는 화가 나고 야속해 하며 실망도 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에게 서로의 뜻이 잘못 전달된다는 의미로, 일종의 부모-자식간의 의사소통 장애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자식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권위적인 전통적 아버지가 이에 해당된다. 필자가 체험한 이러한 가정의 전형적인 예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참조>

사 례

중3 남학생이 사는 게 재미없고 힘들어 자주 죽고 싶다는 것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환아는 부모 모르게 실제 방문 고리에 줄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중2때 한번 있었고, 최근 시험성적이 나쁘게 나온 날 편하게 죽으려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다량 구입했다고 하였다. 면담시 환아는 우울해 보였으며 치료자와 눈맞춤이 안되어 시선은 항상 바닥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치료자의 질문에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단히 답할 정도로 자심감을 상실했고 매우 위축되어 보였다.

환아의 가장 큰 고민은 성적이었다. 중3들어 성적이 오르지 않자 아버지가 직접 챙긴다고 환아 방에 감시차 들어온 후부터는 등 뒤에 아무도 없어도 누가 있는 것 같아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였으며 아버지가 언제 나타날지 항상 불안하다고 하였다. 가장 괴로운 것은 가끔씩 술을 드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잠자던 온 가족을 깨워 자신의 어린시절 고생하며 독학하던 시절에 대해 일장연설을 한다는 것이었다. 연설 내용의 요지는 “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여 성공했는데 너희는 훨씬 좋은 조건인데 왜 못하느냐?”라는 것이었다.

환아는 우울증, 시험불안증 환자로 치료상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가족치료를 시행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지수성가하여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가족 내 독선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였다. 어머니는 남편에 순종하고 참는 전통적 어머니였다. 환아를 비롯한 부모 누나 형이 모인 첫 가족치료 면담에서 그간 가족 내 쌓였던 아버지 에 대한 불만이 일시에 폭발하였다. 온 가족 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아버지로서는 충격이었다. 치료가 끝난 후 아버지는 치료자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가장의 권위를 애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며 치료자에게 항의하였다. 이후 치료가 한참 진행되면서 “자식이 변하려면 우선 아버지부터 변해야 한다”라는 말에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된 자식 사랑 방법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란?

아버지들의 모습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경계하고 조심해야할 모습들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열심히 일한다는 핑계로 밖으로 돌며 가정을 등한시 하는 아버지.
- ② 대화를 한다면서 아이의 말을 듣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잔소리만 늘어놓는 아버지.
- ③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별일 아닐 일에도 짜증내는 아버지.
- ④ 다정다감하지 못하여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아버지.
- ⑤ 말만 앞세우고 거짓말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
- ⑥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어머니를 못살게 구는 아버지.
- ⑦ 칭찬하기 보다는 남과 비교하여 핀잔만 주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눈에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은 아이가 “나도 커서 아버지 같은 인물이 되겠다”는 정체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100점짜리 아버지인 것이다.

몇 가지만 유의한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아이에 말로만 지시하기 보다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행동을 하고 아이와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대화시 훈계보다는 아이의 눈을 쳐다보며 열심히 아이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아이의 생일이나 가족행사는 꼭 챙겨주어야 한다. 조금증이 발동하여 간섭하기 보다는 먼발치에서 아이의 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